

## 풍피두 분관정책에 대한 의문12

이기대 풍피두 분관유치 반대 시민·사회·문화대책위원회

풍피두 분관유치 반대 부산미술인 연대

### 1. 처음부터 정당한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하지 않은 이유<sup>1)</sup>

- (1)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속국이 아니다. 굴욕적인 비밀협상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좋은 일만 있다는 풍피두 분관유치협약이 대외비인 이유?
- (2) 풍피두미술관 분관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시민 문화향유권 향상', '대중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성공적인 사례'라는데 부산 풍피두 유치에 대해 시민대중과 소통을 했는지?
- (3) 목표를 정해놓고 만든 듯한 '타당성 진단용역보고서 작성과 이기대 예술공원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의 방법과 과정, 인원, 등의 성립과정은 적절한가?
- (4) 공론화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모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추측을 가져오는 이유?
- (5) 부산의 자생적인 미술문화기반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정책을 세우기전에 지역미술가 미술관 전문가들에게 공정하게 자문할 수 없는가?
- (6) 공론화이후 협약파기 가능성과 부산시는 이 많은 불평등과 굴욕에도 협약을 파기하지 않을 이유는?
- (7) 부산시는 공청회도 없이 홍보성 보도자료와 글로벌이라는 타이틀 만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감춘 설문 등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증빙근거를 시민에게 성실히 노출하여 잘 알 수 있게 할 책임이 있다.

1)

- 시민 대토론회 자료집-<풍피두분관 유치를 위한 비밀협정서를 파헤친다> - 남송우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 부경대 명예교수) ....굴욕적인 협상 문건의 진상/우리가 프랑스의 속국인가?
- 협약문- "풍피두분관유치 양해각서의 존재, 서명, 목적 및 조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3자 또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기타 정보 전달은 풍피두 센터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풍피두 센터는 프랑스공화국 법률에 따라 센터 특정 기밀 정보, 특히 재정 조건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 용역보고- '세계적 미술관 유치, 세계적 수준의 시민 문화향유권 향상'이라고 천명.
- 시민 대토론회 자료집- <풍피두 분관유치, 약인가, 독인가> -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미술비평)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연구용역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 용역보고- '파리의 풍피두센터는 미술관, 도서관, 디자인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각 공간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중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성공적인 사례'
- 용역보고- '지나친 상업성·공립 미술관의 역할·비전문적 기획 등의 부정적 측면 또한 함께 대두됨. 특히 자생적인 미술 문화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국공립미술관이 블록버스터 전시 기획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협약문- '상호 공익에 침해가 되어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모든 계약상·법적 의무에서 해방되며 완전하고 완벽한 자유를 다시 얻는 것'

## 2. 계약의 불평등, 문화주권의 상실<sup>2)</sup>

부산은 협약당사자이면서 한글이 배제된 협약문에 서명했다. 이를 보면 부산시는 풍피두 분관 내외에서 마음대로 반복 전시할 수도 없으며, 다른 해외 미술관과의 협력도 금지된다. 반면에 풍피두는 프랑스법으로 보호받으며, 마음대로 작품 대여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시하고, 그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도 개최하여 수익을 올린다. 부산시는 땅사고, 건물 짓고, 모든 경비와 로열티, 행정적 책임지원만을 다해야 한다.

이 협약에 공공 문화 교류 실현과 외교적 호혜성이 있다면 운영비와 로열티의 상호존중, 부산 미술관의 파리유치 등도 필요하지 않나?

---

2)

- '풍피두 센터의 서면 승인을 받고 풍피두 센터 담당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하며, 풍피두 선정 업체만 운송담당 한다'는 것은 풍피두분관 연간 운영비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부산시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 '양해각서는 프랑스법에 따르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파리 국제 중재원 규칙에 따라야 한다.'
- '부산시에서 최초 전시를 하고 풍피두는 그 전시를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
- '부산시는 본 사업과 유사하며, 장기적으로 여러 회 개최되는 전시를 위한 국내외 타 문화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부여하지 않는다.'
- '부산시와 풍피두와의 협약문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고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고 되어있다. 통상적인 국제협약에서 당사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는?

### 3. 기존 부산미술을 육성하고 장기적인 기획을 할 수는 없나?<sup>3)</sup>

- (1) 풍피두로 인해 '부산 정체성 확립, 창작, 수준이 높은 문화도시'가 되는 이유?
- (2) 부산의 국제예술 행사들에 관 주도 이전에 선행한 예술인들의 오랜 자발적 희생과 가치를 더욱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생각이 없나?
- (3) 부산의 역사, 사건과 사상, 예술주제를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운영하기보다 자본투입과 수입문화 흥행으로 부산예술의 '글로벌 하이엔드'급 성공이라고 규정하는 이유?
- (4) 서양미술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국내 미술 관람 트렌드에 대해 부산의 전통 장르 및 지역주제를 다루는 미술가들과 같이 연구, 소통하여 부산시다운 혁신과 기획을 만들 수는 없나?
- (5) 풍피두 분관 전시공간과 장비시설 등 계획을 부산시립미술관과 비교하여 공개한 적이 있나?
- (6) 부산시민이 참여하여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며, 교육·향유·성찰·지식·공유를 위한 독자적 미술관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할 수는 없나?
- (7) 미술시장의 분석, 신 미술소비형태의 반영, 전문성 있는 기획사 등의 출현이 부산에서 불가능한 이유?
- (8) 부산의 미술관 부족, 몇 안 되는 미술관마저도 내실 있는 경영을 못했다. 국제 교류협업이나 외교적 차원의 문화교류를 부산의 미술관이 할 수 없었던 이유?

3)

- 용역보고- 부산시민들의 문화행사에 대한 요구사항(시민 오프라인 1,600명, 온라인 200명 표본 조사)으로는 '부산만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도시 조성', '시민들의 창작활동과 문화공유가 활발한 생활문화 도시', '문화기반이 잘 갖추어진 문화도시', '시민의 문화적 교양 및 의식수준이 높은 문화도시'로 나타났다.
- 용역보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 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는 아시아 대표 비엔날레, 아트부산 전국 최고의 아트페어행사.'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합창제, 부산국제무용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장르별 최고 예술행사', '부산불꽃축제, 부산바다축제, 부산항축제는 전국 최고 페스티벌.'
- 용역보고- '향후 부산에 서양근현대 명화를 전문으로 전시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국내의 미술 전시 향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아트 투어리즘 콘텐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용역보고- '세계적 동향에서 "뮤지엄(미술관, 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며, 교육·향유·성찰·지식·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채택한다.'
- 용역보고- 관객들의 새로운 니즈분석, 기업화된 다국적 미술관, 블록버스터 형 대형 전시, 전문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겸비한 전문기획사가 필요하다.'
- 용역보고- '영국 테이트미술관, 프랑스 사립미술기관 매그 재단, 뉴욕 휘트니미술관, 네델란드의 렘브란트 순회재단과 벨기에의 판화전문 미술관 뮤지엄 드리드 등이 서울시립미술관이나 대구미술관등과 협업하여 국제전을 유치.'

#### 4. 문화식민주의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문화 정체성을 이룰 수 없나?<sup>4)</sup>

- (1) 서구 주요 박물관들의 '유럽중심주의'를 우리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부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 (2) 중고생, 어린이, 교사, 일반의 교육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사회적 공감과 교육당국이나 학교 등의 소통도 반드시 풍피두의 내용제공,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풍피두 미술분관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부산문화의 교육적 의미와 우리만의 비평과 가치가 프랑스의 시각에 전체 또는 일부 종속 된다고 본다. 자주독립할 생각은 없나?
- (3) 선진국들이 그러하듯이 정책적으로 부산 작가의 작품을 외국의 '세계적 작품'과 병치하여 전시하거나 한국적인 주제 의식을 담는 등의 역할'을 풍피두가 할 수는 없다. 부산시는 이런 공지를 만들 수 없나 ?
- (4) 세계의 동향은 유럽과 서구의 식민적 사고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식민주의 사상(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 각성되고 있는데,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지 80년이 된 부산은 그런 비평과 논의가 지역문화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풍피두 부산분관 세계적 미술관 정책방향 어디에서 이런 뼈아픈 반성을 했는지?
- (5) 국제적 건축설계공모, 건축계획변경, 건축자문위원을 선정 등의 과정과 참여도가 궁극하다. 세계적 건축 경향의 동일 반복적 유명브랜드 모시기로 국내 건축가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는 세계적 하이엔드와 대응할 부산건축가를 내세울 때가 아닌지 풍피두분관과 관련 없는 부산건축가들을 통해서 듣고 싶다.

4)

- 용역보고- '서구 주요 박물관들은 명성을 이용하여 세계 곳곳에 분관을 설립하고 다른 지역과 파트너십을 구축, 브랜드화를 진행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이름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협약문- '전시교육프로그램도 최종 풍피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용역보고- '이전에는 해외 미술관의 컬렉션을 그대로 가져와 별도의 기획과 의도는 배제된 채 작품 그 자체만으로 전시회를 어필하였다면, 최근에는 공립 미술관 주도로 작품에 기관마다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현상이 등장함.' '즉, 일방향으로 서양의 작품을 들여온 것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미술관 해외 교류는 국내 작품과의 상호 교환 형식이 되어 한국 작품의 또 다른 해외 진출 기회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부산현대미술관 건물의 외벽을 프랑스의 수직정원 창시자 패트릭 블랑(patric blanc)이 디자인하고, 부산의 공공환경디자인은 카림라시드가 맡고, 이기대 예술공원의 건축디자인은 영국의 레오 나르도다빈치 토마스헤더윅이 자문하는 등 세계적인 하이엔드급 유명인을 데려와 브랜드값을 높이려하는 것에는 위축된 문화부재감이 있음을 이해할 수는 있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수 많은 도시에서 수차례 실현되고, 국내에서도 인기상승하는 베스트셀러의 단점은 식상함이다. 건축과 도시의 디자인에서 기능과 니즈를 부산시와 시민들만큼 잘 아는 사람은 부산의 건축가이다.

## 5. 미술관의 전문적 역할을 자문하였는가?<sup>5)</sup>

- (1) 파빌리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누가 건설하는 것이며 왜 건설하는지도 시공 무원들도 잘모른다. 이기대 예술공원의 상징적 조형물 등을 운운하며 전체 공사를 설계하기도 전에 파빌리온부터 설치한다고 무리하게 예산심의까지 한다. 미술관운영의 전문가들과 이런 정책을 의논하였는가?
- (2) 풍피두 부산분관 세계적 미술관의 가치는 지역미술문화 활성화 및 지역민의 미술문화 향유기회 확대, 지역내 미술관련 인력역량강화, 지역발전, 부산시의 국제적인 입지의 인지도제고 등이라고 하는데, 외국미술관인 풍피두가 전문미술관으로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는?
- (3) 성공한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그 지역의 역사와 현실과 예술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 빌려온 다른 문화를 테마로 하여 부산의 세계적 미술관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전문적 미술관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 (4) 부산 예술의 활성화가 관광수입의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는 설정은 문제가 많다. 부산미술아카이빙, 부산미술의 정체성 등 선행되어야 할 근원적인 과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의 오랜 연구를 시도했는가?

---

5)

- 용역보고- 부산시는 풍피두 부산분관 세계적 미술관의 가치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가.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지역미술문화 활성화 및 지역민의 미술문화향유기회확대  
나.문화·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내 미술관련인력 역량강화와 미술관기반 일자리생성  
다.문화브랜딩: 부산시의 국제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는 인지도제고 및 지역발전기회  
라.지역관광활성화: 외국관광객 및 외지관광객타겟의 변별력있는 관광콘텐츠 구축
- 용역보고- '국립현대미술관, 테이트모던, 무목미술관, 루이지애나미술관 등등 관광과 휴식, 힐링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 성공한 새로운 트렌드'

## 6.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시정이 맞는가?

- (1) 부산시는 행정절차를 공정히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공청회 등 공론화과정이 제외된 채 사업의 속도만을 내는 이유는?
- (2) 부산의 랜드마크급 국제행사들이 부산문화를 사랑하는 지역예술인의 주도로 시작하였다. 용역보고는 '부산의 예술활동 중 미술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한다. 시민과 전문미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발생시킬 부산만의 세계적 미술관의 탄생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역사적으로 빛날 부산시의 정책성과가 아닌가?
- (3) 지역민의 삶의 니즈와 폭넓은 문화카테고리의 유치를 미술관에 공유하기 위해 풍피두가 기획하고 협의하자는 대로 진행하기보다 시민들을 잘 아는 부산시가 선제적이고 정당하고 알뜰하게 조사, 확립할 수는 없는가?
- (4) 풍피두분관이 세계적 미술관으로서 부산시가 말하는 '혁신+해양+한류' 등의 정책을 실현 할 수는 없다. 풍피두 분관이라는 이름표 떼고 "부산의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관장부터 전시사무팀의 학예관이나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재정관리하는 독자적 기관의 설립은 불가능한가?
- (5) 풍피두 분관의 많은 사항이 타당성 미흡이다. 부산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여태껏 동의만 해왔나? 풍피두 관련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어디까지 동의하는지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직접 설명이 듣고 싶다.

## 7. 환경평가는 정확하고 자연훼손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6)

- (1) 미술관은 층마다 5미터이상의 높이로 일반 건축보다 매우 층고가 높다. 아무리 친환경적 공법이고 특별한 건축가와 사업자가 나타난다 해도 지상지하 총 5층의 매머드미술관과 부대시설 건축을 위한 발파소음과 건물유지보수를 위해 생태환경멸종의 우려는 반드시 존재한다. 대책은 무엇인가?
- (2) 위험에 처하거나 소멸될 이기대의 동식물종들을 알고 있나? 예술공원건립으로 더욱 가속화될 자연생태계파괴를 구체적으로 환경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시민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는가?
- (3) 이기대가 근린공원시설로 바뀜으로서 주변의 아파트 등 건축규제도 풀릴 가능성은 없나? 시의회에서 검토하고 승인받은 건축영역과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4) 녹지지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건설일변도의 예술공원을 추진하면서도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예술공원건축과 유희시설들이 이 천혜의 자연속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자연파괴적인데 그 최소한의 훼손이라는 것과 보호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민에게 보고 해야 한다.
- (5) 부산시는 작년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의 성공개최에 대한 부분으로 대한지질학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이기대는 지질학적, 학술적, 환경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데 지금 난개발로 훼손하려고 한다. 향후 이를 대처할 방안이 있나?
- (6) 해안가의 개발을 꿈꾸듯이 두루뭉실한 균형발전이라 보고 하였다. 자연훼손과 예술문화의 균형발전인지, 부산문화의 균형인지, 해안절경과 어울린다는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기대 풍피두 유치의 환경과 지역균형발전 등 조목마다의 타당성을 알고 싶다.

6)

- 용역보고- " 해안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부산문화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양성을 위한 이기대공원의 균형적 발전에 용이함." "이기대공원(동생말)에서부터 오륙도까지 이어지는 해안절경과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관광 명소화를 위한 균형적 발전에 적합함." 이라고 보고.

## 8.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데 진행되는 이유는?7)

- (1) 연간 관람객 인원 462,052명'의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 (2) 풍피두 분관의 재무적 타당성은 '0.25이하로 운영의 가치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그럼에도 시민의 혈세(시비)를 사용하는 '비계량적인 편익'을 만들어 낸다. B/C ratio(Benefit-Cost Ratio)1.01,이라는 편익추정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해 낸다. 이때 사용한 시민설문에 풍피두의 부정적 요소는 포함했나? 편익 추정시 시민세금, 부가세, 할인율, 토지보상, 잔존가치 등의 추상적이고, 미래 불특정시점의 환산가치 등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시민은 동의할까?
- (3) 보험, 운송료는 풍피두가 이용하는 세계의 전문업체를 통해 견적이 보고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직접 지불하지 않는 풍피두의 비용청구를 케이스별로 연구해 보았는가?
- (4) 해안의 악조건에서 전시장 필수인 항온, 항습, 방염 등의 설치 비용이나 암반 지형 건축에서 예상되는 발파작업이나 토목공사의 난제 등이 건축비보다 수배나 상회할 것이라는 의문을 정당한 전문가의 분석으로 듣고 싶다?
- (5) 400만유로(65억원) 로열티, 이 비용으로 부산의 미술관이 단독으로 국제교류를 시행 했을 때와 대비하여 비교분석을 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해보라.

7)

○ 용역보고-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나 세계적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가·문화욕구 충족 등 비계량적인 편익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함.' 용역에서는 재무적 타당성을 0.25이하로 운영의 가치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편익성 비율을 1.01로 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매우 타당성이 없다.

○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1170억원) 같은 작품의 보험료, 운송비용, 포장비용, 보관비용을 산정하고, 381평의 상설전시관에 유명한 프랑스작품이 몇 점이나 올 것인지, 그 부대비용을 예시로 환산해 보아야 한다. 월등한 가치로 엄선된 작품이 100점만 들어와도 그 비용은 풍피두분관의 1년 운영비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 용역보고- '국내 미술시장 총 거래 금액은 7563억원이며 경매회사, 화랑, 건축물미술작품, 미술관, 아트페어, 미술은행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 영역의 증감률은 감소했지만, 주요 유통영역 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총 거래 규모는 약 96.5%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용역보고- '연간46만명 입장객으로 46억, 프로그램수입1.2억원, 임대수입4천만원, 사용료 수입 9천만원, 운영수입 9천만원, 주차요금수입 4천만원, 총 운영 수입 50억원'이다. 시민입장에서 추산할 때 운영비125억 로열티 65억 등으로 시민의 세금을 140억이상 지출하여야 하며 보험료 운송료가 운영비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용역보고- '풍피두미술관 분관 건축공사비 80,496,060,000원, 설계비 4,857,696,000원 측량비, 감리비4,307,675,000원 등 총사업비 108,151,891,000원'

○ 용역보고- 로열티- '풍피두 분관의 상설전 및 기획전과 교육 활동 주관을 위한 작품 제공 및 기여에 대한 비용이 연간 이백만유로(32억616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풍피두 센터 상표 사용권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연간 브랜드 사용료 이백만유로(32억616만원).'

○ 용역보고- '부산시에서 직접 지불하지 않는 비용의 경우, 풍피두센터가 각 사업 시작 전에 해당 비용에 대한 예상 금액을 부산시에 제시한다. 풍피두 센터는 부산시에 증빙 서류를 제공한다.'

## 9. 모든 과정에 적법성은 있는가?<sup>8)</sup>

- (1) 매년 이기대 해안에 엄습해오는 해일과 폭풍의 기록을 조사해 보고 그 재난에 방과 항온, 항습, 방염 등의 타당성을 기후 및 미술관 전문가의 의견을 환경영향 평가에 반영하여 보고한 적이 있나?
- (2) 이기대 지역주민이나 문화적 시설이 취약한 서구의 주민들과도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3) 협약문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여품 중에 반환해야 할 우리 문화재 등이 존재할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압류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관련근거는 무엇인가?
- (4) 이기대 인근의 해군작전사령부는 노출불가의 국가보안시설이다 국방부와 이기대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한 공식적 과정을 공개해보라.
- (5) 풍피두 분관은 국내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법령과 과정에 적법한가? 예외규정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8)

○ 협약문- '작품이 대한민국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 관할 당국의 효력이 있는 압류면제 명령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 10. 지역균형개발정책이 맞는가? 9)

(1) 부산시가 자주 인용하는 나오시마, 빌바오구겐하임, 홍콩의 서구룡 문화지구 등은 균형있는 저개발지역 개발, 환경오염지구 복원, 민관협력의 오랜 계획과 연구가 선행하여 성공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안정된 도심지역인 이기대에 풍피두를 유치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가?

(2) 용역보고에는 '부산 서구에는 특화된 관광자원이나 문화예술자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는데 왜 하필 번성한 남구의 이기대에 풍피두를 짓고 예술공원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한 이유?, 이기대 풍피두 분관유치와 동남부 편중의 미술관운영은 균형적 개발에 맞는 정책인가?

---

9)

- 용역보고- '향후 부산지역의 미술 분야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 서부지역의 미술관 및 갤러리의 입지는 부산시 전체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필요하며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부산문화2030비전과 전략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산시민들의 창작활동과 문화공유가 활발한 도시를 위해서는 미술관 및 갤러리에 대한 균형적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1. 사업시작과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는가?

- (1) 박서보미술관 설립발표, 풍피두미술관 시장방문, 숙명여대 용역조사, 풍피두분관유치협약, 라운드테이블 회의록, 이기대 예술공원 국제아트센터, 숲갤러리까지 부산시 보도자료는 제목과 사업성과만 나열되었다. 원인과 변천과정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라.
- (2) 풍피두 분관을 5년간 프랑스가 점유 한 후 재계약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활용 목적과 방안은?
- (3) 풍피두분관 상설전시면적, 교육실, 행사실 입주작가공간 등 주요공간의 면적이 용역보고와 부산시 보도자료가 불일치한다. 이에 따라 전시규모와 특성이 다르게 짐작되는데 이유는?
- (4) 부산시 보도자료대로 "세계적인 미술관 풍피두 부산분관" 운영비에 로열티가 포함되었다면,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여부를 설명하고, 용역보고와 보도자료상의 금액도 상이하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 12.龐피두는 부산에 반드시 필요한가?<sup>10)</sup>

- (1) 龐피두 해외 분관들이 구체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한다.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 (2)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속셈이 다른 프랑스 문화거대주의와 龐피두의 상업적 전략에 우리가 협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 (3) 용역보고에서는 "龐피두 센터의 국제적 네트워킹과 수준 높은 기획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내에서 龐피두는 잘못된 미술관 정책과 혼란스러운 거버넌스"라고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2021년부터 龐피두와 교섭하여 국내 두 군데나 龐피두 분관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10)

- 용역보고- '龐피두 분관은 스페인 말라가, 미국 뉴저지, 중국 상하이, 벨기에 브뤼셀, 사우디 알울라, 한화 등으로 인해 해당도시에 부와 함께 시민결속과 자긍심을 만들어가는 효과가 있다'
- 용역보고- 龐피두입장에서 분관을 수출하는 입장과 의도는  
첫째 국가주도의 문화프랜차이즈사업: 20세기후반 문화의세계화라는 명분으로 문화의 영향력 확대정책진행  
둘째 문화의 적극적소개: 프랑스의 문화예술을 아시아에 적극적 소개 가능  
셋째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 다국적 기업의 운영방식을 참고, 미술관을 국제화하려는 노력  
넷째 분관출점은 프로토타입화 되어 진행중'
- 해외언론- 르피가로- '프랑스 판사들은 "龐피두에서는 현대화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며, 龐피두 폐쇄만이 "따라잡기" 위한 기회라고 결론지었다" 고' 한다. 여전히 그래도 세계적인 미술관인지 궁금하다.  
<https://www.lefigaro.fr/culture/la-cour-des-comptes-et-rille-la-gestion-et-les-projets-du-centre-pompidou-20240423>
- 해외언론- 미국 아트뉴스- '프랑스 감사원보고서에 따르면 龐피두 리모델링비용으로 3억5,800만 유로( 3억8,300만달러 한화 5,690억원) 지연비용 2억1,400만달러(한화3,152억원) 총비용 8,842억 이 든다고한다. 이중 2024년 4월현재 3,900만유로(4200만달러 한화620억원)를 겨우 모금했다고 한다. 이런 추정치외에 천문학적인 경비가 더 들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프랑스법원은 龐피두파리의 급여를 포함한 비용을 보다 잘 통제할 것을 권고했고 노동력을 아웃소싱할 가능성으로 인해 이미 몇 달 동안 龐피두는 파업이 발생한 상태인 지경이다.'  
<https://www.artnews.com/art-news/news/centre-pompidous-economic-model-is-unstable-frances-court-of-auditors-reports-1234704498/>
- 해외언론- 라디오프랑스- '龐피두 센터가 여전히 문화적 거대주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龐피두의 에너지소비는 이제 관리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미술관 모델로 정말 龐피두 부산분관이 타당할수 없다.  
<https://www.radiofrance.fr/franceculture/podcasts/la-question-du-jour/centre-pompidou-a-t-on-encore-les-moyens-de-financer-le-gigantisme-culturel-4764194>